

2. 氣候變化協約 後續 協商의 爭點

- (問題 提起) 최근 기후변화협약 관련 우리 정부의 국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간 보고회에서 「온실 가스」 저감 정책의 현황·평가, 「온실 가스」 배출 시나리오 분석 및 후속 협상 대응 방안 토의
- (氣候變化協約 後續 協商의 主要 爭點) 향후 협상의 주요 쟁점중 선발 개도국의 義務 負擔 의제가 OECD 가입 문제와 결합되어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
- (經濟的 影響) 附屬議定書 타결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 규제가 단행되는 경우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化石 燃料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는 생산 비용의 증가와 수출 감소를 통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對應 課題) 부속의정서 체결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음. 하지만 협약 이행을 위한 선진국들의 수입 규제 조치와 OECD 가입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배출 규제 의무를 최소화하는 협상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국가 보고서를 위한 중간 보고회에서는 온실 가스 저감 정책의 현황·평가, 온실 가스 배출 시나리오 분석 및 후속 협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의

○ 問題 提起

- 기후변화협약 관련 우리나라의 국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中間 報告會가 금년 10월 중순경 개최되었음
- 기후변화협약의 의무 조항으로 선진국들은 200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토록 노력하고 개도국은 국가 보고서와 국가 전략을 제출토록 되어 있음
- 동협약에 개도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97년 2월까지 온실 가스 배출 현황 및 그 低減 대책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함
-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온실 가스」¹⁾ 저감 정책 현황·평가, 온실 가스 배출 시나리오 분석 및 후속 협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가 토의

1) 「온실 가스」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CO₂, 메탄 등의 가스를 나타냄

<기후변화협약의 추진 일정 및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주요 쟁점	제 1차 가입국 회의 결과
88.1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IPCC) 설립	- 배출 의무 - 선진국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동결 노력	- 주요 의제 - 2000년 이후 온실 가스 감축 일정 및 목표
90.12: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설립	- 개도국 국가보고서와 국가 전략 제출	- 선발 개도국에 대한 의무 분담
92. 6: 리우 환경개발유엔회의 (UNCED)에서 채택	- 재정 지원	- 공동 이행
94. 3: 50국 가입 발효	-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범위	- 기술 이전
95.3-4: 협약 제1차 당사국 총회 개최	- 기술 지원	- 회의 결과
96.10경: 제2차 당사국 총회(몬테비데오)	- 선진국은 상업적 조건 - 개도국은 무상 이전	- 이들 주요 의제의 구체적인 목표와 합의에는 실패
97: 제3차 총회까지 협약 검토를 완료하고 부속의정서 작성 예정		- 이들 의제를 다룰 기구 설립에 합의

향후 협상의 주요 쟁점중 선발 개도국의 의무 부담 의제가 OECD 가입 문제와 결합되어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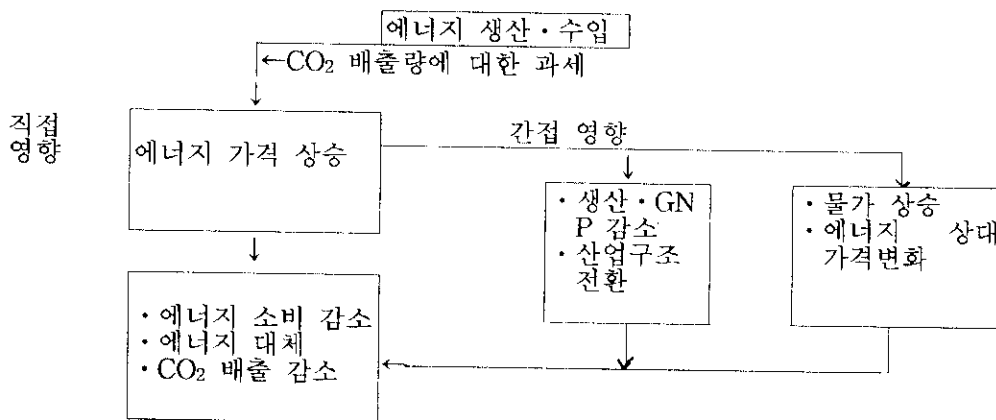
○ 氣候變化協約 後續 協商의 主要 爭點

- 附屬議定書 작성을 위한 향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는 2000년 이후의 온실 가스 감축, 선발 개도국의 의무 분담, 共同 移行, 기술 이전 등이 예상
- 특히 온실 가스 배출 규제 의무를 선진국에서 先發 開途國까지 확대하려는 선진국들의 노골적인 압력은 OECD 가입 문제와 함께 후속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開途國 地位를 위협하는 요인임

○ 우리나라에 대한 經濟的 影響

- CO₂ 배출과 에너지 사용 규제는 직접적으로는 에너지 價格 上昇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物價 上昇의 파급을 통해 생산·소득 감소를 초래

<CO₂ 배출에 대한 에너지/탄소세 부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CO₂ 배출 규제는 화석 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임

선발 개도국의 의무 부담 문제의 타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기후변화협약의 단기적 경제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전망

협약 이행을 위한 선진국들의 수입 규제 조치와 OECD 가입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온실 가스 규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한 化石 燃料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온실 가스 배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큼
 -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石油化學, 鐵鋼, 시멘트 등의 업종은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기술 개발 지연시 가격 상승을 통한 생산·수출 감소 등 큰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

○ 對應 課題

- 기후변화협상 대한 평가 및 전망
 -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 가스 배출 규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또한 협약 관련 부속의정서 작성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상당히 진통을 겪을 전망이기 때문에 선발 개도국의 責任 分擔 論도 타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단, 선진국들이 협약 이행을 위해 탄소세 도입, 에너지 이용 기기에 대한 最低 效率 기준의 설정과 효율 未達 製品에 대한 販賣 禁止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제품의 수출 타격 우려
- 이처럼 부속의정서의 타결 여부가 불투명하나 貿易 依存度가 매우 높고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후속 협상에서는 선발 개도국과의 공동 보조를 통해 규제 의무를 최소화하고, OECD 가입시 규제 의무 適用 猶豫 期間을 최대한 연장해야 함
 - 대내적으로는 경제 효율성의 제고와 에너지 절약적·環境 親和的인 産業 構造로의 이행 등을 위한 에너지 수급 전략의 조정, 부문별 에너지 절약 추진 등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함

(채 영 배)